

A책형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에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 ① 성공(成功) : 실패(失敗)
- ② 시상(施賞) : 수상(受賞)
- ③ 판매(販賣) : 구매(購買)
- ④ 공격(攻擊) : 방어(防禦)

1. ①

제시된 문장은 방향 반의어에 대한 설명이다. ①은 상보 반의어이고, 나머지는 모두 방향 반의어에 속한다.

㉠ 상보 반의어: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되는 단어의 쌍으로 중간항이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예) 남자-여자, 출근-퇴근, 살다-죽다

㉡ 등급 반의어: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것으로 중간항이 있고, 동시에 부정이 가능하다.

예) 길다-짧다, 높다-낮다, 쉽다-어렵다

㉢ 방향 반의어: :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쌍을 의미한다. 방향 반의어에는 공간적 대립, 인간관계 대립, 이동적 대립이 있다

예) 위-아래, 부모-자식, 주다-받다, 열다-닫다

문 2.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
-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꾀한다.

2. ②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 주제를 알려주고, 토론자들을 소개한 후 발언 순서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공정함을 잃으면 안 되고, 적절한 질문이나 요약 등을 하면 좋다.

문 3.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멕시코의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 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만 1,497만 3,900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3. ①

비문학에서 숫자를 이용하면 객관성이 높아지고, 이는 설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글은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 전체 농토의 2/3, 멕시코에만 1,497만 3,900ha의 열대 우림’ 등의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문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인다.
-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4. ④

‘머리말, 인사말, 반대말’ 등은 ‘ㄴ’ 소리가 덧나지 않기 때 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昇昇 Point - 기타 사잇소리 표기와 발음

① 된소리로 발음되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것들

기차길, 고갯길, 갯돈, 고갯짓, 고깃간, 가갯집, 갈빗대, 깃대, 기댓값, 김칫국, 컷등, 컷불, 건넛마을, 나랏빚, 나랏돈, 냉잇국, 냇가, 나잇값, 나잇살, 노랫소리, 날갯짓, 날갯죽지, 낚싯대, 눈칫밥, 등곶길, 담뱃가게, 대곶값, 만뚝국, 막넛동생, 만훤가게, 며느릿감, 못국, 머릿속, 뱃가죽, 뱃속, 바닷속, 북엇국, 배춧국, 바짓단, 부춧돈, 뱃길, 빨랫줄, 빨랫감, 뺏속, 셋길, 시래깃국, 성뫼길, 신붓감, 사윗감, 노갯돈, 세뱃돈, 소싯적, 잇속, 우거깃국, 연뫼빚, 안춧감, 이맛살, 우렛소리, 어갯죽지, 우웁빚, 장삿속, 장맛비, 장뫼빚, 잣빚, 자춧빚, 전깃줄, 찢값, 제삿밥, 지랫대, 종잇조각, 최댓값, 최솟값, 치맛바람, 치맛단, 터춧대감, 푸춧간, 핫김, 하곶길, 화갯거리, 횃집, 등.

②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

꼬리말, 머리글, 머리말, 예사말, 반대말, 인사말, 소개말, 머리기사, 농사일, 설거지물, 코웃음

(⇒ 노랫말, 존댓말, 혼잣말, 팻말)

③ 한자어라 된소리는 인정하지만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

대가(代價), 개수(個數), 시가(時價), 제상(祭床), 화병(火病), 도수(度數), 허점(虛點), 내과(內科), 치과(齒科), 시구(詩句), 백지장(白紙張), 대구법(對句法), 소주잔(燒酒盞), 기차간(汽車間), 마구간(馬廐間)

① ‘노래말’은 [노랜말]로 ‘ㄴ’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노랫말’로 적는다.

② ‘순대국’은 [순대꾹]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순댓국’으로 적는다. ‘-국’이 붙은 것은 모두 사이시옷을 적는다. 위의 표 참고.

③ ‘하교길’은 [하교깁]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하곶길’로 적는다.

문 5.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반영론은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취한 비평적 입장이다.

(나) 강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 ①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형식을 통해 정제된 시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났군.
- ②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만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 ③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 ④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5. ②

문학 작품의 감상 관점에는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 등이 있다. 외재적 관점에는 작가 표현론, 시대·사회 반영론, 독자 효용론 등이 있고, 내재적 관점에는 작품만 따져 보는 작품론 또는 절대주의적 관점이 있다. (가)의 관점은 시대·사회 반영론에 대한 설명이다. 시 ‘나그네’는 46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당시에는 광복 후 혼란한 사회의 모습이 많았다. 그러나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만을 그린 게 아니냐는 감상평은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감안

한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시상의 표현, 시적 분위기, 시상 전개 방식인 선경후정, 감각적 표현 등으로 내재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밀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①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
- ② 반가운 벗과의 독어야말로 진정한 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 ③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
- ④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가 중요하다.

6. ①

이 글에서 마지막 문단에 ‘독서는 글을 읽고, 집필한 필자를 읽고, 그것을 읽는 독자 자신을 읽는 삼독이다’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독서는 타인(필자)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

문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7. ②

‘옛’은 관형사로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 옛 사랑, 옛 친구, 옛 모습

① ‘그중’은 합성어로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이 중’, ‘저 중’은 띄어 써야 한다.

③ ‘한번’이 1회를 뜻하면 띄어 써야 하고, ‘지난 어느 때나 기회’, ‘기회가 있는 어떤 때’,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경우’,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경우’ 등을 나타낼 때는 ‘한번’으로 붙여 쓴다.

④ ‘굴속’은 합성어로 붙여 써야 한다. ‘마음속, 가슴속, 산속, 물속’ 등도 이와 같다.

문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가을일[가을릴] | ㉡ 텃마당[툃마당] |
| ㉢ 입학생[이팍쌩] | ㉣ 흙먼지[흥먼지] |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8. ③

‘입학생’은 [이팍쌩]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축약과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① ‘가을일’은 [가을릴]로 발음되는데, 이는 ‘ㄴ’첨가와 유음화(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② ‘텃마당’은 [툃마당]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이 둘은 모두 교체로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④ ‘흙먼지’는 [흥먼지]로 발음되는데, 이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과 비음화(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이 중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영역에 속한다.

문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 ②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 ③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④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9. ①

‘접수되었을 때에는’을 보면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문맥상 알맞은 시제이다. 만약 ‘접수될 때에는’이 되면 미래시제 선어말 어미 ‘-ㄹ’이 붙어 미래시제가 된다. 따라서 바꿀 필요가 없다.

② ‘교부’가 두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한다.

→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③ 목적어(수역을)와 서술어(제외된)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④ 서술어 ‘열람한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동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하게 한다.

문 10.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피 잇네
녀던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나) 술은 어이하야 도흐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하야 도흐니 염매(鹽梅) 툷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뜯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호리라
- (다) 우레갯치 소르나는 님을 번기갯치 번뜻 만나
비갯치 오락가락 구름갯치 헤어지니
흉중(胸中)에 브름갯튼 혼숨이 안기 피듯 호여라
- (라) 하하 허허 혼들 내 웃음이 정 웃음가
하 어척 업서서 늣기다가 그리 되게
벗넘니 웃디들 말구려 아귀 띄여디러라

- ① (가):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문답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③ (다): ‘갯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
- ④ (라):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10. ②

(나)에는 ‘술은 어이하야 좋은가? 누룩을 섞은 탓이다, 국이 어이하야 맛이 좋은가? 간을 알맞게 한 탓이다.’에서 문답법이 활용되었지만, 차이점을 드러내는 대조법과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 ① ‘나도 고인 못 뵈었으니~고인을 못 뵈어도’, ‘녀던 길 앞에 있으니~녀던 길 앞에 잇거든’으로 연쇄법이 사용되었고, ‘아니 녀고 엇덜고’에서 고인이 가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갯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웃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이라며 냉소적인 태도와 상대에게 웃지 말라는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가)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중 9수

표현 : 대구법, 연쇄법
주제 : 옛 성현의 도리를 본받고자 함
현대어 풀이
옛 성현도 나를 보질 못했고 나도 옛 성현을 뵈지 못했네
고인을 뵈지 못했어도 그 분들이 행하던 길이 내 앞에 있네
그 가던 길(진리의 길)이 앞에 있으니 나 또한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는가?

(나) 윤선도, ‘파연곡(罷宴曲)’

표현: 대구법
주제: 임금의 만수무강 기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
창작 동기: 연회석에서 임금을 간하기 위하여 지은 노래.
현대어 풀이
술은 어이하야 좋은가? 누룩을 섞은 탓이로다.
국은 어이하야 맛이 좋은가? 소금을 타서 간을 알맞게 한 탓이로다.
이 음식의 원리를 알면 만수무강하리라.

(다) 작자 미상의 시조

표현: 반복법, 직유법
주제: 이별의 슬픔
현대어 풀이
우레같이 소리 나는 입을 번개같이 번뜻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 (사랑을 주고받고)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

(라) 권섭의 연시조(전10수), 풍자시

성격: 냉소적, 교훈적, 현실 비판적, 풍자적
표현: 문답법, 설의법, 돈호법
주제: 진실한 삶의 자세
현대어 풀이
하하 허허 하고 웃는 내 웃음이 정말 웃음인가
세상일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느끼다가 그렇게 웃는 것이네
벗넘네들이여, 내가 웃는다고 같이 웃지를 말구려. 웃다가 아귀가
찢어질지도 모르니까

문 11.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가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체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체 기능을 하다.	㉣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 ④ ㉣: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

11. ③

다의어 ‘살다’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의 ‘살다’는 ‘어렸을 때 배운 노래 한 구절이 머릿속에 아직도 살아 있다.’의 의미이다.

③의 ‘살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문 12.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홍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홍 교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홍 교수: 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14년에는 9.0%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홍 교수: 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홍 교수: 일회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당시에만 교통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홍 교수: 네.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다.
- ②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 ③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 ④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12. ①

진행자는 상대방의 의견에 더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홍 교수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는 내용은

바르지 않다.

② 홍 교수가 제시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대하여 진행자는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③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홍 교수가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자, 진행자는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으며 홍 교수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④ 홍 교수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소개하자, 진행자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지,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물으며 홍 교수에게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문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 ①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 ②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 ③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 ④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13. ④

이 글은 계몽주의 사상가인 헤겔, 다윈 등을 소개하며 진보와 진화에 관한 다양한 견해, 입장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은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이 적절하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소사가 말하기를, “신부(新婦)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사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妾)이 일찍 아버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어미 첩을 보낼 제 중문(中門)에 임(臨)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兢兢(耿耿)하여 쫓가에 있나이다.”

유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라?”

사씨 대 왈,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버지께 간(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봉우(朋友) 서로 책(責)하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 그러하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삽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

유 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時俗) 여자가 미칠 바리오.” 라고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에서 -

* 조대가: 『한서(漢書)』를 지은 반고(班固)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왕실 여성의 스승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 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유 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흠족해 하고 있다.

14. ③

사씨는 오륜 중에 부부의 도가 있기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하고, 신하가 나라에 간하고, 형제와 친구 또한 그러하니 부부끼리도 간쟁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사씨의 어머니는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고 가르쳤을 뿐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는 내용은 없다.

②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처럼 말한 것은 겸손(겸양)의 표현이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유 소사는 사씨를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았던 조대가에 비겨 흠족함을 표현한 것이지, 사씨의 효성을 말한 것이 아니다.

문 15.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레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체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팡 당 팡 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 거리의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별정계 단 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팡 당 팡 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쭈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만 수궁을 했다.

팡 당 팡 당.

그 쇠붙이에 쇠망치 부딪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의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 이호철, 「닿아지는 살들」에서 -

- ①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 ② ‘팡 당 팡 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 ③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 ④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15. ④

‘단선적 구성’은 하나의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작품에서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하는 것도 아닌, 오히려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① 늙은 나무들이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팡 당 팡 당’은 단조로운 소리인 동시에 송곳처럼 쭈시는 구석이 있다고 했으므로 ‘팡 당 팡 당’은 주인공의 심

리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③ ‘단조로운 소리’의 반복을 통해 ‘송곳’, ‘비수’ 등의 심리적 불안함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호철, <닿아지는 살들>

해제: 전쟁으로 인한 분단이 한 가족에게 가져다 준 고통과 상처를 다룬 작품이다. 특별한 사건 없이 북에 두고 온 맏딸을 기다리는 한 가족의 상황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있다. 뚜렷한 사건의 전개는 보이지 않으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역시 단절된 상황을 보여 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들려오는 ‘쇠붙이 소리’는 가족의 정신적 상처를 상징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닿아지는 살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가족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기다림의 지속으로 인해 마모되어 가는 가족의 유대감을 상징하고 있다.

- 1) 갈래 : 단편 소설, 전후 소설
- 2) 배경 : 5월의 어느 날 저녁의 한 실향민 가정
- 3)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4) 구성 : 어느 하루 저녁부터 자정까지의 한정된 시간으로 짜여 있음
- 5) 표현 : 무겁고 음산한 분위기를 지님
- 6) 의의 : 실향민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분단의 비극에서 비롯됨을 그려 냄
- 7) 주제 : 전후(戰後)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가족의 권태와 비극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나는 <일 포스티노>를 세 번쯤 빌려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뿌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나는 종종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무릎을 쳤을 것이다.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라면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이 이르면 은유는 절정에 달한다.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 ① 영화 <일 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 ② 영화 <일 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 ③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
- ④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6. ②

이 글에서 글쓴이는 영화의 장면을 통해 ‘은유’를 설명한 것이다. 영화 속의 인물들이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①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는 것은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영화 ‘일 포스티노’에는 ‘문학이 뿌리를 틀고’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문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효(孝)가 개인과 가족, 곧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 인간관계이다.
-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다.

20. ③

셋째 단락 중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에서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① 첫째 단락에 효(孝)가 일차적인 인간관계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한다는 설명에서 이는 글쓴이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효가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라는 내용은 없다.

④ 셋째 단락에서 글쓴이는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다는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만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라는 내용은 본문에 있지 않다.